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재생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이해

김민소*

目 次

- I. 서론
- Ⅱ. '재생하는 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
- Ⅲ.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
- IV. 두 신의 재생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그 비교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논문은 신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여러 종교적 개념들 가운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재생하는 신'(Dying and Rising gods)을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재생하는 신'에서 다루고 있는 '재생'(rising)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Jesus the Christ)의 일회적인 '부활'(resurrection)과는 구분된다. 나아가 신의 재생을 통해 지상의 풍요와 다산이 보장된다는 의미까지 지니기에 본 연구논문에서는 '부활'과는 의미상 구별 가능한 '재생' 혹은 '소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문맥에 맞게 사용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종교백과사전 E.R.』 '부활' 항목의 뒷부분을 보면 '부활의 선구자적 형태'로서 프레이저의 '재생하는 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프레이저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신들의 죽음 이후의 되살아남을 두고서 'resurrection, revival, rebirth' 등의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즉, '부활, 소생, 재생, 재탄생' 등 프레이저에 게는 모두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부활'로 번역할 경우의미 전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되살아남'을 연상시키며, 실제로도 그러한 뉘앙스를 지닌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자 본 연구논문에서는 특별히 '부활'을 배재한 다른 번역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신들에 대해 연구한 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의 저자인 프레이저(J.G. Frazer)이다. 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일군의 젊은 신들이 주기적으로 죽고 되살아나는 유사한종교적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를 '죽는 신'(Dying gods)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죽는 신'은 이후의 학자들을 통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재생하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고착되었다. 본 연구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탐무즈(Tammuz)와 페르세포네(Persephone)는 이러한 '재생하는 신'의 범주를 대표하는 신들로 주기적으로 지하세계를 방문해야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제까지 이 두 신들은 지상의 생산력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곧 모든 존재의 생명이 쇠퇴하는 계절을 몰고 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그들이주어진 운명에 따라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면 식물의 생명력 또한 다시금 회복된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신들의 지하세계 방문은그들의 죽음으로, 지상으로의 귀환은 그들의 재생으로 해석되어 왔고 그러한 점으로 인해 이 두 신이 다산을 관장하는 '재생하는 신'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페르세포네와 탐무즈의 신화와 의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프레이저 이래로 개념화된 '재생하는 신'으로 범주화하기에는 두 신이 전하는 죽음과 재생의 의미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프레이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두 신의 신화와 의례가 풍요 기원의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의 사라짐과 풍요를 연관시키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발견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행위중 하나이며 또한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현상이기에, 이를 풍요 기원적 성격에만 의존하여 해석한다면 이 두 신의 재생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재생이라는 개념에는 '죽음을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죽음에 대한 시각 또한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풍요 기원이라는 해석에만 치우쳐서는 두 신의 죽음과 재생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며, 죽음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두 신이 전하는 재생의 성격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들을 문맥에 따라 사용했음을 밝힌다. Helmer Ringgren, "Resurrection," i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Detroit: Macmillan Reference Library, 2005), pp. 7762-7768.

실제로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신화와 의례를 통해 드러난 페르세포네와 탐무즈 의 귀화의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숭배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재생의 의미와 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페르세포네의 신화와 의 례가 제공하는 재생은 기본적으로 신과 숭배자 사이의 친밀함을 기반으로 하여 죽음 이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죽음을 극복하는, 내세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반면, 탐무즈의 신화와 의례가 제공하는 재생 은 전자와는 달리 죽음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기 보다는 체념하며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는 특징을 보인다. 그들의 죽음에는 엘레우시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사후 에 경험하게 될 행복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죽음의 악한 면으로부터 해악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생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특 별히 죽음에 대한 시각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이들 신들의 재생을 받아 들인 숭배자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고자 했는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재생에 대한 각각의 신화와 의례에 그대로 녹아들 어, 페르세포네의 경우에는 비의(mysteries)라는 독특한 종교 형태로 전개된 반면 에 탐무즈의 경우 죽음을 기념하는 차원의 의례, 즉 죽은 영혼을 달래는 애도 의 례와 구마 의례적 틀로 점차 고착화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신화와 의례 안에서 드러나는 페르세포네와 탐무즈의 재생의 성격과 의미는 죽음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시금 고찰되어야 한다. 프레이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그들의 주기적인 죽음과 재생의 상징인 지하세계로의 하강과 지상으로의 상승은 분명 매년 되풀이되는 식물의 생장과 쇠퇴로 이해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풍요에 대한 기원적 성격을 지닌의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 숭배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신들의 재생을 재해석하여 수용하고, 전개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본문을 통해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신화와 의례가 서로 다른 죽음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제까지 풍요 기원만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던 '재생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새로이 해석될 수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재생하는 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프레이저의 재생하는 신에 대한 연구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젊은 신의 죽음과 재생을 담고 있는 신화와 의례들이 퍼져있었다. 이러한 신화와 의례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루되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적 해석에서 벗어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단초를 제공한 이가 바로 프레이저이다. 프레이저는 죽고 재생하는 지중해의 신들을 하나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여 일반화를 꾀하였다. 그가 제시한 '죽는 신'(Dying gods)이란 이러한 고대 지중해 문명권에서 발견되는 신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일군의 학자들은 죽음과 재생을 경험하는 젊은 신의 집단을 가리켜 '재생하는 신'(Dying and Rising gods)이라고 개념화하였다.2)

이러한 프레이저의 연구에 큰 영향을 준 이는 로버트슨 스미스(W.R. Smith)와 만하르트(W. Mannhardt)였다. 이들이 지닌 진화론적 사고와 유사성에 기초한 비교의 방법은 19세기의 유럽의 지성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었다. 프레이저와 절친한 사이였던 R.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와 논쟁을 통해 아직은 풋내기 학자에 불과했던 프레이저에게 원시 민족의 연구를 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의 이론을 통해 프레이저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과 의례를 연구하여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원시적인 측면이 원시 민족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R.스미스는 프레이저에게 인류학적 흥미를 일깨워주고 길러준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편 만하르트는 당시 유럽의 농부들이 보여주었던 풍요 의례의 주술적 측면에 주목하여 '식물 정령'(vegetation spirit) 혹은 '곡물 신'(corn demon) 과 같은 개념을 제시한 뒤, 이들을 위무하여 다산(fertility)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풍요 의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프레이저가 식물신의 죽음과 재생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밑그림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에서 유사한 관습이 발견되는 것은 그것을 유발시킨 유사한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유사성의 법칙'(the law of similarity) 또한 프레이저는 흡수하였다.3)

Jonathan Z. Smith, "Dying and Rising Gods," in Lindsay Jones (Ed.),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Detroit: Macmillan Reference Library, 2005), pp. 2530-2540.

³⁾ Robert Ackerman, The Myth and Ritual School: J.G. Frazer and the Cambridge

이와 같은 지적 바탕 위에서 프레이저는 '살해당한 사제-왕' 개념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황금가지』의 저술을 시작하였다.4) 그리 고 이 노쇠한 왕이 살해당한 사건을 식물의 다산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 하였다. 즉. 신의 죽음이 식물처럼 죽고 되살아나며 다산을 가져온다고 여겼기에 죽음을 맞게 되는 왕을 가리켜 신의 화신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실제인간이 아닌 희생제물 혹은 신화 속의 신을 살해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프레이저는 이렇게 탄생한 죽음과 재생을 경험하 는 신의 범주에 아도니스(Adonis), 아티스(Attis), 오시리스(Osiris) 등 각자의 종교 전통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신들을 포함시켰다.5) 그리고 그들이 식물의 속성을 지닌 '식물 신'(vegetation gods)이며, 신화 속에서 죽음과 재생을 경험하고, 이들 의 죽음과 재생은 계절적 주기와 맞물려 매년마다 풍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의 례의 형태로 거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프레이저는 이를 확장시켜, 『황금가지』 제3판을 출간하면서 식물정령인 디오니소스(Dionysos), 페르세포네(Persephone) 등 을 재생하는 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6) 이것이 바로 죽었음에도 되살아나는 신에 대한 프레이저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프레이저의 주장은 이후 해리슨(J.E. Harrison), 머레이(G. Murray), 콘퍼드(F.M. Conford) 등을 필두로 하는 신화-의례 학파 (The Myth and Ritual School)와 가스터(T.H. Gaster) 등에 의해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생하는 신'의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프 레이저의 범주와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좇아가고 있으며 그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 감한 시도를 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들이 지니고 있 는 식물 신으로서의 속성 그리고 그들의 죽음-재생의 패턴을 풍요와 관련지어 계 절 변화의 유비로서만 해석하는데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있는 다 양한 자료들을 유사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처럼 일원화 된 담론은 곧이어 등장할 1차 문헌의 새로운 해석과 보다 개별적 이고 전문화된 연구 성과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점차 낡은 담론으로 간주되기 시작

Ritualists (New York: Routledge, 2002), pp. 47-49.

⁴⁾ Jonathan Z. Smith "When the Bough Breaks," in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 210.

⁵⁾ James G. Frazer, *The Golden Bough: Adonis, Attis, Osiris*, Vol. 7 (New York: Palgrave Publishers, 2002), pp. 5-6.

⁶⁾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91-92.

하였다.

2. '재생하는 신'에 대한 재해석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생하는 신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프레이저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전히 주인공 신은 죽음과 재생을 경험하는 존재였으며, 그들의 재생으로 인해 지상의 계절적 질서가 회복되고 풍요가 보장된다는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새로이 발견된 1차 문헌들에 근거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정교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하는 신'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프레이저가 제시한 기존의 범주에 속하는 신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의 장이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개별 연구를 무시한 채 일원화된 보편적 개념만을 강조한 프레이저의 주장은 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일례로, 이집트 학자인 프랑크포르트(H. Frankfort)는 프레이저의 '죽는 신'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이집트의 죽는 신, 오시리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개념이 하나의 일반화된 범주로서 기능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가 개별 신들의 연구에서 역사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유사한 고대근동의 문명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계관 혹은 정신 (mentality)을 지닐 수 있음을 개진하였다. 기이러한 지적은 그가 유사한 종교현상이라 할지라도 본래적인 기원과 차이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간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프레이저의 범주에 대한 문제점 인식 그리고나아가 유사성 속에서 차이를 인식하는 태도는 이후에 등장한 조나단 스미스 (Jonathan Z. Smith)에게서 만개하게 된다.

J.Z. 스미스는 "Dying and Rising Gods"라는 논문을 통하여 프레이저가 제시한 재생하는 신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특별히 프레이저가 제시하였던 '죽는 신'은 과거 성스러운 인간 왕의 살해를 신화화한 흔적이라는 유헤메리즘(Euhemerism)적 해석을 비롯해, 죽음과 재생을 계절에 따른 식물의 주기에 유비시켜 해석했다는 자연주의(Naturism)적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러한 범주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8) 이러한 J.Z. 스미스의 생각은 종교학 안에서 마주치

⁷⁾ Henri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 N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294.

게 되는 범주설정의 문제와 유사성의 비교에서 벗어난 차이 인식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구체적인 예에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스미스는 이를 발전시켜 그의 또 다른 저서인 *Drudgery Divine* 을 통해 그리 스도를 비롯해 후기 고대(late antiquity)의 재생하는 신들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 기도 하였다.9)

이러한 J.Z. 스미스의 비판이 나온 이후, 각 전통의 종교 전문가들은 그의 연구에 힘입어 개별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우가리트의 바알(Ba'al)을 연구한마크 스미스(M. Smith)는 바알을 단순히 계절에 따라 재생하는 신이 아니라 죽은왕의 신격화로 보았으며, 그를 애도하기 위해 행해졌던 의례 역시 죽은 왕들을 위한 왕가의 의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란첼로티(M.G. Lancellotti) 또한다른 재생하는 신인 아티스(Attis)의 재생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산과 관련된 아티스의 재생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개념 또한 상당히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1] 결론적으로 이들 학자들은 '재생하는 신'에 대한 개념의적합성 역부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신들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들 모두가 J.Z. 스미스의 문제제기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프레이저를 넘어서려는 시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종교학에서 '재생하는신'의 개념과 그 범주는 점차 해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재생에 대한 새로운 제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재생하는 신'의 연구 경향은 과거 프레이저가 제기한 기존의 범주를 해체하는데 열중해 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레이저 이래의 과도한 일반화에 대한 위험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

⁸⁾ Jonathan Z. Smith, "Dying and Rising gods"

⁹⁾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85-143.

¹⁰⁾ Mark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120-131.

¹¹⁾ Maria G. Lancellotti, Attis Between Myth and History: King, Priest and God (Leiden: Brill, 2002), p. 164; 재생하는 신으로서의 아티스를 부정하는 입장은 또 다른 이탈리아 학자인 가스파로(G.S. Gasparro)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Soteriology and Mystic Aspects in the Cult of Cybele and Attis (Leiden: E.J. Brill, 1985)에서 아티스의 재생을 부정하며, 재생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연구는 이후 J.Z. 스미스의 Drudgery Divine 에서 후기 고대의 재생 하는 신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재생하는 신의 죽음과 의례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 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 또한 위험한 태도이다. 분명 프레이저의 주장이 지닌 재생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러한 도식에 의거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연구논문의 비교의 대상인 탐무즈와 페르세포네는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먼저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은 고대 지중해 지역의 독특한 종교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비의 종교(mystery cults), 그 중에서도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숭배를 기반으로 하는 엘레우시스 비의(Eleusinian Mysteries)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2) 게다가 두 여신을 위한 이 비밀스러운 종교적 경험은 이후 후기 고대의 대다수 비의 종교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기반인 죽음 재생의 도식 또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든 영향을 주었다.13) 이상의 점들을 고려했을 때 비의 종교, 그 중에서도 엘레우시스 비의에 대한 프레이저의 해석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메소포타미아의 오래된 신 중 하나인 탐무즈의 연구에도 해당된다. 탐무즈의 재생은 그간의 고대 근동 문헌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도무방할 정도로 새로운 자료의 등장에 따라 그 해석 역시 여러 번 번복되었다.(4) 수메르학의 대가인 사무엘 크레이머(S.N. Kramer)조차도 탐무즈의 재생에 관해여러 번 입장을 바꿨을 정도이니 말이다. 초기에 프레이저가 탐무즈의 재생을 확신했을 때 그 근거로써 사용한 자료는 단편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완전한 번역조차 없었던 지라 재생에 대한 그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죽음을 맞이하여 지하세계로 끌려가는 탐무즈의 전신(前身)인 두무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새로운 판본의 등장으로 더욱 확실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60년 대 이후, 수메르 판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페르세포네와 같이 두무지의 주기적인 오르내림을 담고 있는 몇 줄이 새로이 해석되고 출판되면서 두무지의 죽음과 재생에 대한 논

¹²⁾ 물론 모든 비의 종교가 식물 신을 숭배하며, 그 신의 죽음과 재생을 신앙의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Walter Burkert, *Ancient Mystery Cult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7), p. 101 을 참고하라.

¹³⁾ 로마 제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이시스와 오시리스 숭배의 경우, 이집트에서 기원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의적 속성은 기존의 그리스, 로마세계에 퍼져있던 데메테르 숭배와의 혼합현상(syncretism)을 통해 얻은 것이다.

¹⁴⁾ O.R. Gurney, "Tammuz Reconsidered: Some Recent Developments," in *Journal of Semitic Studies*, Vol. 7, No. 2 (Autumn. 1962) 참고

의는 또 다시 급변하게 된다. 즉 탐무즈는 수메르 판본의 마지막 몇 줄을 근거로 하여 분명 프레이저 도식에 부합하는 '재생하는 신'으로 다시금 간주된 것이다. 이러한 탐무즈의 재생은 수메르 이후의 아카드어로 된 바빌로니아 판본도 뒷받침하는데, 수메르 판본에서 등장한 반년과 같은 구체적인 귀환 주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탐무즈가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프레이저의 '재생하는 신'은 분명 수정될 부분이 많은 종교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와 같이 여전히 그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신화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차용(borrowing)이 아닌 이상, 아니 혹여 차용을 했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종교현상이란 결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

Ⅲ.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

이'(difference)에 주목하여 두 신의 재생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두 신의 재생과 그 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분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유사성'(similarity)을 비롯해

1. 메소포타미아의 재생하는 신, 탐무즈

석,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탐무즈는 수메르 시대 이래로 목축과 식물의 다산을 보장하는 신으로 숭배되어왔다. 그는 지상에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신이었지만, 동시에 지하세계로 끌려가 죽음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는 신이기도 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동시에 아우르는 탐무즈의 역설적인 모습을 그의 신화와 의례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 탐무즈의 죽음과 재생을 담고 있는 문헌적 증거로는 기원전 175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메르어 판본 "이난나 하강신화"(Inanna's Descent)¹⁵⁾와 기원전 1500~1000년의 아카드어 판본 "이슈타르 하강신화"(Ishtar's Descent to the Nether world)¹⁶⁾가 대표적으로 약간의 각색된 것을 제외하고는 두 문헌 모두 동

¹⁵⁾ Thokild Jacobsen, *Harps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7), pp. 205-232.

¹⁶⁾ Stephanie Dalley, "The Descent of Ishtar to the Underworld," in William W.

일한 신화를 담고 있다. 다만 수메르어 판본에서는 탐무즈의 전신(前身)인 두무지의 재생이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지 덧붙이고 있는 반면에 아카드어 판본에서는 이렇게 지상으로 귀환하는 탐무즈를 어떻게 맞이하겠다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재생하는 신'으로서의 탐무즈의 모습은 수메르 판본과 아카드 판본 모두에서 발견된다. 우선 탐무즈의 죽음에 대해 수메르 판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하세계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뒤로 한 채 지하세계로 내려간 여신 이난나(Inanna)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힘(ME, divinity)을 빼앗기고, 지하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지혜의 신 엔키(Enki)의 도움으로 그녀는 지하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지상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자신을 대신해지하세계에 머무를 대리인(substitute)을 찾아 나선다. 이 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기던 남편 두무지 즉 탐무즈를 대리인으로 선택, 지하의 신들(Galla)로 하여금 그를 지하세계로 끌고 가게 만든다. 그러나 그를 따라 나선 누이 게쉬틴안나(Geshtinanna)의 덕분으로 두무지는일 년 중 반년을 지하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너는/ 반년을, 너의 누이(게쉬틴안나)가 반년을 (그곳에서) 있어라! 만약 네가 필요하다면, 너는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만약 네 누이가 필요하다면, 너는 (그곳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거룩한 이난나가 그녀를 대신하여 두무지를 넘겨주었다. (이난나 하강신화, 407-410행)¹⁷⁾

이 구절은 누군가가 지하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를 대신할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바로 그러한 지하세계의 법으로 인해 두 신이 매년 번갈아가며 지상과 지하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두무지 즉 탐무즈는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신으로 간주되었다. 18)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Leiden: Brill. 2003), pp. 381-384; 아카드어 판본은 앗수르(Assur)와 니네베(Nineveh), 두 곳의 도서관에서 출토된 것들 을 한데 모아 번역한 것이다.

¹⁷⁾ Thokild Jacobsen, op. cit., p. 232; Bendt Alster, "Inanna Repenting: The Conclusion of Inanna's Descent," in Acta Sumerologica, 1996.

¹⁸⁾ 나아가 이러한 탐무즈의 성격은 지상의 다산과 연관되어 숭배되었다. 이는 신의 죽음과 재생을 다루고 있는 종교적 관념이 분명 지상의 생명의 쇠퇴와 재생이라는 질

한편 탐무즈가 지닌 '재생하는 신'으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의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의 죽음과 재생을 담고 있는 의례의 흔적을 가장 쉽게 찾을 수있는 자료로는 구약성서의 에스겔서(Ezekiel)를 들 수 있다. 19) 기원전 6세기의 이기록에 등장하는 담무스는 앞서 살펴본 탐무즈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 여인들의 애도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보다 오래된 자료들에서 살펴본 두무지와 탐무즈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누이 게쉬틴안나와 어머니 두투르(Duttur)에 대한 전승이 천년이 넘도록 고대 근동20) 세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탐무즈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로, 그의 죽음과 재생이 어떠한 의례적 형태로 기념되었는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등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조들의 단편적인 의례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재구성된 기록들은 탐무즈의 죽음과 재생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의례, 즉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애도 의례(mourning ritual)와 연례적인 귀환을 축하하는 의례- 특별히 성혼례(sacred marriage) -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전자인 애도 의례의 경우 주지하듯 지하세계로 끌려간 탐무즈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졌다. 이난나 하강신화를 비롯해 두무지와 탐무즈가 등장하는 대다수의 기록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는 메소포타미아 만신전 안에서 매년 죽음을 경험하는 신으로 숭배되었

서와 어떻게든 관련되어 이해되었음을 증거 한다. 두무지 즉 탐무즈가 수메르 시대 이래로 목축과 식물의 다산을 보장하는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탐무즈는 지상에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다산의 신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경험한 죽음으로 인해 지하세계와 관련된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었다고 본다. 참고로 탐무즈의 죽음과 재생을 지상의 풍요와 연결하여 해석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레이머(S.N. Kramer)와 약 콥슨(Th. Jacobsen) 등이 있다, Thorkild Jacobsen,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Thorkild Jacobsen, "Toward the Image of Tammuz," in History of Religions, Vol. 1, No. 2 (Winter, 1962).

^{19) &}quot;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 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 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 가!" 표준새번역, 에스겔서 8:14.

²⁰⁾ 필자는 본 논문에서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는 특별히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흥성한 두 강 사이의 지역을, '근동'(Near East)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서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까지 아우르는 보다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 특히 이러한 탐무즈의 죽음의 사건은 수메르 시대 이래로 여러 도시국가들. 특히 우룩(Uruk)을 비롯해 우르(Ur), 라가쉬(Lagash), 니푸르(Nippur), 움마 (Umma)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패권을 지닌 도시들을 중심으로 기념되었으며 이 들은 특정 기간을 탐무즈(혹은 두무지)달리)로 정하여 지하세계로 끌려가 죽음을 맞은 그를 애도하였다. 이러한 애도 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움마와 우르에서 행해진 '어린 초목'(ú-sag)이라는 이름의 축제를 들 수 있다. 매년 봄마다 움마에 서 거행된 이 축제에서 숭배자들은 여신 이난나를 의미하는 조상(statue) 혹은 하 프(harp)를 앞세워 죽은 두무지를 애도하며 그가 죽음을 맞이한 황무지로 무리지 어 행렬하였다.22) 이 축제가 거행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바빌로니아 왕조와 우르 3왕조의 기록 등에서 발견되는 것23)에 비추어 보아 죽은 남편과 곡 하는 여신이라는 신화적 전승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례를 통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두무지 달의 19일에 여성 곡꾼들(mourners, ba-ki-tim)을 포 함하는 의례가 거행되었다는 기원전 2 천년기의 마리(Mari)의 기록을 비롯해,24) 기원전 1 천년기의 기록인 길가메시 서사시(The Epic of Gilgamesh)가 전하는 연 례적인 탐무즈 애도의 의례적 증거25)들은 이러한 탐무즈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흔적이 오랜 세월동안 메소포타미아 세계 안에서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렇게 지하세계에서 주어진 시기를 보낸 두무지는 다시금 생명을 얻어 지상으로 귀환하였고 이 또한 의례로서 기념되었다. 이제까지 두무지의 귀환을

²¹⁾ 수메르의 역법체계 (standard calendar)에서 월 설정과 호칭은 각 도시마다 달랐다. 따라서 두무지/탐무즈 달 또한 서로 달랐다. 우르 3왕조 시기의 움마(Umma)에서는 (1년의 시작은 3-4월) 열두 번째 달이 두무지 달이었던 반면, 다른 곳에서는 네 번 째 달 즉 6-7월이 두무지 달이기도 했다.

²²⁾ Mark E. Cohen, The Cultic Calendars of the Ancient Near East (Maryland: CDL Press, 1993), p. 163; Thorkild Jacobsen, "Religious Drama in Ancient Mesopotamia," in Hans Godedicke (Ed.), Unity & Diversity: Essays in the History,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Ancient Near Eas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p. 85.

²³⁾ Mark E. Cohen, op. cit., p. 144; 이난나 하강신화에서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근동의 여러 전승을 통해 이난나는 그를 위해 곡을 하는 아내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화가 보여주는 '비논리적 (illogical)'인 성격을 보여준다.

²⁴⁾ Ibid., p. 289, 479.

²⁵⁾ 길가메시 서사시 제 6토판(46-47행)에서 길가메시는 이슈타르 여신으로 인해 매년마다(šatta ana šatti) 그 죽음이 애도되어야만 하는 탐무즈의 운명을 전한다,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 51.

기념하는 의례로 알려진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성혼례(sacred marriage)이다. 크레이머와 야콥슨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두무지와 이난나의 사랑을 담은 신 화적 전승들과 이러한 성혼례를 연관시켜, 의례의 과정 가운데 왕과 여 사제가 각 각 두 신의 역할을 맡아 육체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듬해의 다산과 풍 요를 보장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중요한 점은 성혼례에 이러한 다산의 의미가 부여 된 데에는 두무지 즉 탐무즈의 재생의 관념의 역할이 컸으며, 더불어 이러한 관념 을 통해 숭배자들이 새로운 생명, 특별히 목축과 식물의 새로운 탄생과 번성에 대 한 기대감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인들에게 탐무즈는 대추야 자에 깃든 자연의 내제적인 힘을 비롯해 수많은 목축을 거느리는 목동과 나무 수 액의 신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닌 신으로 숭배되었다.26) 그러나 혹서의 여름이 되면 탐무즈가 지닌 다산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푸르던 평원은 메마른 황폐함으로 가득 하게 된다. 이러한 가혹한 시련의 시기는 메소포타미아 인들에게 분명 죽음의 시 기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금 지상에 새로운 생명이 자 라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탐무즈가 지하세계로부터 되살아나 귀환한 것이라 여 겼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한 탐무즈는 아내 이난나와 다시금 결합하여 숭배자들에 게 풍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성혼례는 바로 이러한 탐무즈의 재생 그리 고 그와 더불어 다산에 대한 기대의 차원에서 거행된 것이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무즈의 숭배 그리고 그의 전신인 두무지의 숭배는 죽음과 애도 그리고 재생을 통한 지상의 풍요 기원의 목적 아래 거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대로 갈수록 탐무즈의 귀환, 즉 죽은 신의 재생을 기념하는 의례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혼례와는 다른 성격으로 전개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애도의례와 맞물려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귀환하는 탐무즈를 향하여 숭배자들이 곡을 하거나, 악귀를 물리쳐 달라는 일종의 구마 의례적(exorcism)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성격의 의례였다. 이에 반해 성혼례는 후대로 갈수록 실제로 왕에 의해 집전되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등27) 점차 사라지는 대신에, 이러한 탐무즈의 애도 의례와 구마 의식은 역으로 더욱 성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메르 판본과는

²⁶⁾ Thorkild Jacobsen, "Toward the Images of Tammuz," in *History of Religions*, Vol. 1, No. 2 (Winter, 1962), p. 190.

²⁷⁾ 신 앗시리아 시대(기원전 670년, 에사르하돈(Esarhaddon) 왕)에 이르면 왕은 더 이상 여사제와 실질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다. 대신 상징적으로 신들이 결합했다는 암시만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Jean Bottéro, *op. cit.*, p. 157.

달리 아카드어 판본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의례를 묘사하는 구절 등을 더하고 있어, 후대로 갈수록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들이 탐무즈의 재생을 통해 풍요의 기원보다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탐무즈의 죽음과 재생을 그의 숭배자들이 독특하게 해석하여 반영한 결과이며, 필자는 바로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여 다음 장을 통해 탐무즈의 재생을 페르세포네의 그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2. 그리스의 재생하는 신, 페르세포네

재생하는 신으로서 탐무즈가 보여준 모습은 그리스의 페르세포네의 신화와 의례에서도 발견된다. 기원전 7세기의 기록으로 페르세포네의 지하세계 하강을 다루고 있는 "데메테르 찬가"(The Homeric Hymn to Demeter)를 보면,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로 납치되어 그곳의 여왕이 되고 탐무즈처럼 일 년 중 일정 기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주기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는 페르세포네 즉 코레(Kore)²⁸⁾의 행동은 학자들에 의해 계절에 따라 변하는 농경 주기에 대한 기원론적(etiological) 설명으로 해석되었다.²⁹⁾ 그럼이에 대한 신화와 의례적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신화 즉 문헌학적 증거로 살펴본 코레의 죽음의 경우, 사실 찬가의 어디에서도 그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없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thanatos)는 찬가 내에서 단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불사의 존재가 되는 데 실패한 데모폰(Demorphoon)이 앞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운명에 대해 언급할 때 등장할 뿐이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가의 시인은 코레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딸이 사라진 이후 화려한 머리 장식을 벗어던지고, 검은색 베일을 드리운 채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지상을 방황하는 데메테르의 모습은 마치 검은 상복을 입고 죽은 딸을 애도하는 어머니의

²⁸⁾ 코레(Korē)는 페르세포네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으로 "데메테르 찬가"의 전반부에 서 그녀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된다. 반면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은 그녀가 지하세계로 끌려가 하데스의 아내가 된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름의 변화를 통해 어린 소녀 즉 코레(그리스어로 '소녀'[maiden])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한 페르세 포네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²⁹⁾ Carl Kerenyi, *Eleusis: Archetypal Image of Mother and Daught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1967]), p. 136.

³⁰⁾ Jenny S. Clay, *The Politics of Olympus*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2006), p. 216.

모습을 연상케 한다.31) 이에 더해 사라져버린 딸이 하데스의 왕국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데메테르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듯 애통해한다. 당시 그리스 인들의 신화적 상상력 속에서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 세계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로 헤르메스(Hermes)와 같은 예외적인 존재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신들조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던 세계였기 때문이다.32)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찬가의 시인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코레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찬가를 수용한 이들은 그녀의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페르세포네의 죽음은 뒤에서 다룰 그녀의 귀환과 이를 기념한 의례에 담긴 재생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페르세포네는 앞서 살펴본 탐무즈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다시금 살아나 지상으로 귀환한다. "데메테르 찬가"의 후반부는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기근의 발생,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중재에 나선 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페르세포네로 하여금 일 년의 일정 기간만큼 지상과 지하세계를 번갈아가며 머무르도록 명한다.33)

데메테르는 그녀의 딸이 순환하는 한 해의 1/3 동안은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보내야 하고, 나머지 2/3 동안은 어머니(자신)와 다른 불사의 존재들과 보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데메테르 찬가, 445-447행)34)

이처럼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페르세포네의 행적은 그녀가 지닌 식물 신, 특히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신으로서의 속성과 결부되어 탐무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물 신의 주기적인 죽음과 재생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지하 세계에서 4개월을 보

³¹⁾ N.J. Richardson, *The Homeric Hymn to Deme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 163; Ovidius, *Fasti*, 천병희 역, 『로마의 축제일』(서울: 한길사, 2005), p. 202 (4.457ff)

³²⁾ Jenny S. Clay, op. cit., p. 212.

³³⁾ 지상에 머무르는 기간에 대한 해석은 이본에 따라 각기 다르다. 아폴로도로스의 Bibliotheke (강대진 역,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의 경우 1년의 2/3, 오비디우스의 Fasti (천병희 역, 『로마의 축제일』)의 경우 1년의 1/2 만큼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J.G. Frazer, The Golden Bough: Spirits of the Corn and of the Wild, Vol. 9 (New York: Palgrave Publishers, 2002), p. 40.

³⁴⁾ H.G. Evelyn-White, *Hesiod, The Homeric Hymns and Ho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 320.

낸 후 "대지가 봄날의 꽃들로 만발할 때"35) 지상으로 귀환하여 데메테르 여신과 보낸다는 찬가의 구절로 보아, 페르세포네의 재생은 지상을 뚫고서 움터 나오는 곡물의 새로운 생명력과 동일시되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는 헤시오도스(Hesiod)가 전하는 그리스의 농경 상에 비추어보았을 때 보다 분명히 확인 가능하다. 헤시오도스는『일과 날』(Works and Days)을 통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지는 10월경에 쟁기질하여 씨를 뿌리고, 다시 플레아데스 성단이 나타나는 5월경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이 그리스 농사의 법칙이라고 전한다.36)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이러한 농경의 주기를 통해 1년 중 무더운 여름이 그리스 농부들에겐 휴경의시기였으며, 지상에서 식물이 사라지는 이러한 넉 달간의 시간이 찬가에서 제시한 페르세포네의 지하세계 방문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문헌적 증거들에 의거하여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은 분명 그리스인들에게 '재생하는신'으로서 이해되고, 또한 숭배되었음이 분명해졌다.

다음으로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은 "데메테르 찬가"에서 드러난 신화적 내용 이외에도 의례에 반영되어 주기적으로 기념되었다. 그녀의 재생을 담고 있는 의례적 증거로는 엘레우시스 비의(Eleusinian mysteries)가 대표적으로 이는 찬가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대의 농경의례를 기반으로 하여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을 전하고자 했다. 특히 이에 대한 흔적은 엘레우시스 비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에포프테이아(Epopteia)에서 찾을 수 있다. 에포프테이아는 그리스어로 '보여진 것'이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비의의 과정 가운데 입문자들에게성스럽고, 상징적인 무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에포프테이아가 열린 텔레스테리온(Telesterion)에서 입문자들이 절정의 순간에 목도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간주했기 때문에분명히 확신할 수는 없다. 엘레우시스 비의에 대해 연구한 밀로나스(G.E. Mylonas)도 이에 대해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라 말하며 온전한 재구성에 대해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37)

하지만 대개 학자들은 비의의 절정의 순간에 페르세포네의 출현 혹은 그녀의

³⁵⁾ Ibid., pp. 316-317.

^{36) &}quot;아틀라스의 딸들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뜨면 수확하기 시작하고, 지면 쟁기질하고 씨 뿌리기 시작하시라." Hesiod, Works and Days, 천병희 역,『신통기』(서울: 한길사, 2005), p. 106 (383-384행); 강대진, 『고전은 서사시다』(서울: 안티쿠스, 2007), p. 168.

³⁷⁾ George E. Mylonas, *Eleusis and the Eleusinian Myste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 316.

재생을 상징하는 곡식의 이삭(ear of corn)이 입문자들에 의해 목격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38) 먼저 비의의 순간 페르세포네가 등장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터툴리안(Tertullian)의 기록을 들 수 있다. 그는 데메테르의 여사제가 페르세포네의 역할을 도맡아 입문자들 앞에 그 모습을 실제로 드러냈으리라고 보았다.39) 이외에도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헤라클레스"의 일부를 담고 있는 기원후 2세기의 한 이본은 엘레우시스 비의에 입문자로서 참석한 헤라클레스가 비의의 정점에서 '코레' 즉 페르세포네를 보았다고 덧붙이고 있기도 하다.40) 이러한 증거들로 비추어 보아 페르세포네의 출현이 비의의 절차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집작할 수 있다.

한편 힙폴뤼투스(Hippolytus)는 엘레우시스 비의의 절정의 순간에 곡물 이삭이 최고 사제(hierophant)에 의해 입문자들을 향해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다.41) 이 때 잘린 곡물 이삭은 지상에 생명력이 다시 나타남과 동시에 죽음의 세계로 가버린 페르세포네가 되살아나 지상으로 귀환하였음을 알릴뿐만 아니라, 고대의 풍요 의례적 속성을 지닌 엘레우시스 비의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더 없이 적합한 상징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엘레우시스 비의를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데메테르 찬가"를 비롯해 이소크라테스(Isocrates) 역시 비의와 함께 곡물을 데메테르가 준 두개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며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42), 비의의 과정 가운데 곡물의 출현은 없어서는 안 될 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비의 안에서 페르세포네의 재생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념되었으며, 그 가운데 곡물은 여신의 재생을 상징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숭배자들이 지하세계의 여왕으로서 지상에 출현하는 여신을 목도하였으며, 여신의 죽음과 재생 그리고 곡물의 새로운 탄생을 비의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비밀과 연결하여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³⁸⁾ N.J. Richardson, op. cit., p. 26; Bruce Lincoln, Emerging from the Chrysali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86-87.

³⁹⁾ George E. Mylonas, op. cit., p. 310.

⁴⁰⁾ Bruce Lincoln, op. cit., p. 87.

⁴¹⁾ Hippolytus, Philosophoumena, 5.8. 38-41.

⁴²⁾ Carl Kerenyi, op. cit., pp. 120-121.

Ⅳ. 두 신의 재생으로 이해한 죽음의 의미와 그 비교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탐무즈와 페르세포네는 분명 죽고 되살아나는 존재이며,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지상의 다산과 풍요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두 신들의 죽음과 재생을 담고 있는 신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되살아남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몇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탐무즈의 죽음과 재생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 다룬 수메르 판본보다 후대의 것인 아카드어 판본, "이슈타르 하강신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탐무즈가 내게 돌아오는 그 날에 그가 청금석 플루트와 홍옥수 반지를 가지고 내게 올 때, 그가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게 올 때, 죽은 자들이 올라와 향을 맡을 것이다!⁴³)

위의 인용문에는 탐무즈가 두무지와 같이 주기적으로 지상에 출현할 것이라고 암시만 있을 뿐, 수메르 판본에 등장한 '반 년'(MU. MAŠ)과 같은 구체적인 주기는 나타나있지 않다. 대신 특별히 아카드 판본은 탐무즈의 귀환하는 날 죽은 자들이 그와 함께 지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즉, 벨릴리(수메르의 게쉬틴안나)는 죽은 탐무즈(수메르의 두무지)가 되돌아올 때 죽은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 곡을 하고 피리를 불며, 향이 피워질 것이라고 노래한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적인 애도의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달랬던 것처럼 탐무즈 또한 그렇게 애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인용문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탐무즈가 죽은 영혼들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구절이다. 이구절은 당시 탐무즈의 재생을 수용하고 전개시킨 메소포타미아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의 세계를 방문을 한다는 믿음을 비롯해 그들과 함께 탐무즈가 앞장서서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래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죽은 영혼이 영원히 지하세계에 종속되며 결코 그

⁴³⁾ Stephanie Dalley, "The Descent of Ishtar to the Underworld," pp. 383-384.

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죽음관을 가지고 있었다.44)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지상을 떠돌아다니며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는 영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죽은 영혼이 일시적으로 지상에 귀환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해놓고 그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가족단위 뿐만 아니라 국 가단위로 일종의 제사의식을 거행하였다.45) 필자는 이슈타르 하강신화가 전하는 탐무즈의 귀환, 즉 그의 재생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 다. 탐무즈는 아내를 애도하지 않은 결과 죽음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 고, 그리하여 죽은 영혼들처럼 영원히 지하세계에 종속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 는 자신을 대신하여 지하세계에 누이가 머무르면 지상에 출현하여 주어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치 죽은 영혼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산 자들로부터 대접을 받듯 이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탐무즈는 주어진 운명에 따라 다시 지 하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때도 죽은 자들과 함께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야콥슨이 인용한 앗수르(Assur)에서 발견된 앗시리아의 주술서(incantation)는 탐무즈가 지하 세계로 돌아갈 때 그와 함께 지상에서 해악을 끼치던 많은 영혼들이 지하세계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46) 이 뿐만이 아니다. 탐무즈는 후대로 가면서 악한 영혼들을 쫓기 위해 매년 거행된 구마의례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신 으로서 점차 기능하게 된다.47) 이러한 탐무즈와 죽은 영혼들의 결합은 시대를 거 듭하면서 점차 강화되어 갔고, 신-앗시리아 시대에는 그가 지하세계로부터 질병을 몰고 오거나, 거두어 가는 존재로 간주되는 등 죽음과 관련된 탐무즈의 속성은 점 점 더 고착되어 갔다.48) 즉, 그의 신화와 의례를 수용한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그

⁴⁴⁾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pp. 121ff; 스미스는 고대 지중해 문명들의 세계관을 크게 '위치 중심적'(locative) 세계관과 '유토피아적'(utopian) 세계관으로 구분 지었고, 이를 중심으로 종교 현상을 설명하였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전자인 '위치 중심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본다.

⁴⁵⁾ Jean Bottéro, Mesopotamia: Writing, Reasoning, and the Go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1987]), p. 283.

⁴⁶⁾ Thorkild Jacobsen, "Religious Drama in Ancient Mesopotamia," in Hans Goedicke (Ed.), *Unity & Divers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p. 71.

⁴⁷⁾ J. A. Scurlock, "Magical Uses of Ancient Mesopotamian Festivals of the Dead," in Marvin Meyer (Eds.), Ancient Magic and Ritual Power (Leiden: E.J. Brill, 1995), p. 99; Benjamin R. Foster, Before the Muses: An Anthology of Akkadian Literature (Maryland: CDL Press, 2004), p. 641.

⁴⁸⁾ Gwendolyn Leick, "Dumuzi," in *A Dictionary of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y* (London: Routledge, 1991), p. 32.

의 되살아남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모습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

반면 그리스의 페르세포네가 전하는 재생은 탐무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페르세포네는 식물 특별히 밀, 보리 등 곡물의 여신으로, 고대그리스 인들은 지상에서 식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여신의 죽음과 재생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중해의 농경 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 인들은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을 논하는데서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프레이저가 말한 듯이 죽고 되살아나는 남신(god)을 여신 (goddess)으로 바꾼 그리스 인만의 상상력으로 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페르세포네의 재생은 그녀를 숭배하는 이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죽음에 유비시켜 가장 혐오스럽고 기피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음에는 틀림없다.49) 이를 보여주는 데메테르 찬가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지상의 인간들 중 비의를 목도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입문하지 않고, 입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사후에 어둠의 세계 속에서 그러한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데메테르 찬가, 480-482행)⁵⁰⁾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비의에 참여하여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두 여신을 섬기면 이세상과 저세상에서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사후세계에서의 행복을 보장하는 비밀이었다. 비의가 전하는 사후의 행복에 대해 소포클레스 (Sophocles)는 찬가와 유사한 구절을 언급한다. "그 의례들을 보고 하데스로 떠난 인간들은 3배의 복을 받을 지어다!" 이외에도 핀다로스(Pindar) 또한 엘레우시스 비의를 두고서 "그 의례를 보고 텅 빈 지하세계로 간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했 다.51) 그리고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대는 비의의 절정이 열린 텔레스테리온에서 지상으로 귀환하는 페르세포네 혹은 그녀를 상징하는 곡물 이삭을 보는 것으로 얻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의 여왕을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희망에 대한 비밀의 열쇠 즉 새로이 얻은 지식이 아니었을까. 바로

⁴⁹⁾ 죽음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묘사한 것은 대표적으로 에우리피데스 (Euripides)의 '알케스티스'(*Alcestis*)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5, 466-470, 690-705행 참고

⁵⁰⁾ H.G. Evelyn-White, op. cit., p. 322,

⁵¹⁾ George E. Mylonas, op. cit., p. 299.

이것을 얻기 위해 입문자들은 '예비 준비자'(mystai)로서 그리고 '비의를 목도할 자'(epoptai)로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페르세포네의 모습은 오래토록 기다린 입문자들에게 신비로움과 전율, 그리고 매혹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그 비밀스러운 순간을 목도함으로써 입문자들은 비로소 지하세계에서의 행복 그리고 지상에서의 행복이라는 두 가지 특권을 손에 쥐게 되었고, 죽음 또한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52)

이와 같이 탐무즈와 죽은 자들의 결합,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 종속된 존재로서 주기적으로 이세상과 저세상을 오가는 그의 행보는 그리스의 유사한 사례인 페르세포네의 죽음과 재생과는 전적으로 구분된다. 두 존재 모두 주기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는 운명을 부여받았고, 죽음의 세계에 종속된 존재들이지만 —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의 여왕으로, 그리고 탐무즈는 처음에는 연인 이난나의, 이후에는 그의 누이 벨릴리(게쉬틴안나)의 대리인으로서 지하세계의 법에 묶여 있음 — '되살아남'으로 해석되는 그들의 지상과 지하세계의 오르내림은 전혀 다른 의미로 숭배자들에게 이해되었다. 숭배자들로 하여금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던져주었던 페르세포네와는 달리, 탐무즈의 재생은 그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비롯해,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행복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단지 탐무즈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오는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의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살아있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두 종교의 숭배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Ⅴ. 결론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인들에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하는 순간임과 동시에 현세의 기쁨과 즐거움을 망각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였다. 따라서 죽음은 가능하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본 연구논문에서 살펴본 신의 '재생'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

⁵²⁾ 지상에서의 행복은 부(wealth)를 상징하는 플루토스(Ploutos)가 보장해 주었다. "데메 테르 찬가" 489행 참고.

한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공간적,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자료이지만 메소포 타미아의 탐무즈와 그리스의 페르세포네는 공통된 무언가를 가정할 수 있을 정도 로 유사한 측면을 지녔다. 주기적으로 지하세계를 오르내리며 매년 지상에 풍요를 전해주는 그들의 모습은 숭배자들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에 유비시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라짐과 귀환은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으로 인식되었고 숭배자들의 종교 심성에 자리하여 신화와 의례 같은 형태로 표출되고 기념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두 신의 신화와 의례를 살펴보았다. 과거 프레이저가 제시한 '재생하는 신'의 개념은 탐무즈와 페르세포네의 유사성을 인식하는데 적절한 틀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프레이저 이후에 출판된 자료들을 더하여 살펴본 결과, 실제로 이 두 신의 신화와 의례가 전하는 재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죽음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는 차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신이 제공하고, 숭배자들이 받아들인 죽음의 의미와 그 극복의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탐무즈의 경우 죽음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주기적으로 귀환하였지만, 그의 재생으로부터 숭배자들이 전개시킨 믿음은 죽음의 악한 면으로부터 벗어나, 현세의 안녕(安寧)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여전히 사후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였고,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길가메시 서사시가 전하듯 죽음은 극복할 수 없으니 차라리 현실에 충실한 것이 보다 값진 것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53) 탐무즈의 재생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숭배자들은 그의 재생으로부터 사후세상의 행복이나 이집트와 같이 현세보다나은 제 2의 삶을 기대하는 대신, 그가 데리고 올라오는 영혼들을 잘 애도하고 달래어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저주를 미리 차단하고 현세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탐무즈의 재생을 담은 신화와 의례는 내세를 기원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구마의식의 성격으로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리스의 페르세포네 숭배를 담고 있는 데메테르 찬가와 엘레우시스 비의와는 차이가 있다. 찬가는 과거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보여주었던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3의 삶의 양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엘레우시스

⁵³⁾ Jean De Savignac, "La sagesse du Qôhéléth et l'épopée de Gilgamesh Vetus," in *Testamentum*, Vol. 28, Fasc. 3. (Jul. 1978), pp. 319-320; Tzvi Abusch, "Ishtar's Proposal and Gilgamesh's Refusal: An Interpretation of 'The Gilgamesh Epic', Tablet 6, Lines 1-79," in *History of Religions*, Vol. 26, No. 2. (Nov. 1986), p. 148.

의 의례는 풍요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넘어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데메테르 찬가의 480~482행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죽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신과 같은 불멸 혹은 영혼 윤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리라는 것(ὄλβιος)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축복을 받아 비입문자들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상, 특히 곡물의 쇠퇴와 재생이 인간의 운명으로 전환, 해석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탐무즈의 재생과는 대비되는 페르세포네의 재생이자 나아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의 '재생하는 신'의 신화와 의례가 담고 있는 죽음의 의미이다.

주요어: 탐무즈/두무지, 이슈타르/이난나, 페르세포네, 재생하는 신, 지하세계 하 강, 프레이저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ammuz and Persephone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ir Death and Revival

Kim, Min-so

J.G. Frazer categorized many gods who annually experienced death and revival into "Dying and Rising gods." Both Tammuz and Persephone analysed here come to a tragic death, visit the nether world and return to the earth every year. On this score, many scholars have considered them as fertility gods and also analogized their death and revival with the vegetational cycle. But it is impossible to explain entirely what their dying and rising means without considering the view of death because "revival" implies the conquest of death. Considering this, we can find the meaning of these gods' death completely different.

Ideas about Tammuz's death and revival had his worshippers develop a down-to-earth view of death. Instead of expecting happier life in the nether world, They chose to live happily in this world by appeasing the souls who annually ascended with Tammuz, and protecting their life from the diseases and curses accompanied with the dead. So, the ritual showing Tammuz's revival, especially mourning rites and exorcism, became more and more active.

Persephone's dying and rising was also projected into her myth and ritual. However, the attitude toward the life after death presented by Eleusinian Mysteries and the Homeric Hymn to Demeter was more positive than that of Tammuz's. Whoever took part in her special ritual, he could assure himself of getting beatitude in the life after death. Based on this faith, initiates of Eleusinian Mysteries could make a momentum to conquer the fear of death.

Key Words: Tammuz/Dumuzi, Ishtar/Inanna, Persephone, Dying and Rising gods, Descent to the Nether World, J.G. Frazer